

“호남에서 보수의 길 열고 청년 정치인 육성하겠다”

국힘, DJ센터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8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호남과의 남다른 인연을 강조했다. 특히 호남에서 보수의 길을 열고, 젊은 정치인을 육성하겠다는 등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지역 현안 해결 약속과 발전 방향 제시 등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상현, “호남 비례 약속 저버려”=윤상현 후보는 “호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나주 명예시민증이 있고, 조선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5·18 공법단체와 특전사회의 역사적인 화해 행사에 유일무이한 국회의원으로 참석했다”며 “하지만 우리 당은 이번에도 호남을 버리고 배신했다. 당규상 20명 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중에 (호남) 5명을 배정했어야 함에도 우리는 그 약속을 버렸고 여러분(당원)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았다. 어떤 이유나 변명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필요할 땐 가차 없이 이용하고, 불필요하면 가차 없이 던져버리는 정말로 부끄러워진 우리 당의 잃어버린 자화상”이라며 “부도덕한 만행, 거짓과 배신을 이렇게 일삼는 정당에 어떻게 호남민들이 표를 주시겠나. 거짓과 배신의 결과가 총선 참패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칭 사·도·당 아카데미 상설, 광주·호남의 경제 살리기 위한 '광주·호남 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광주에 제2 당사 구축, 매주 월요일 광주·호남 전 지역을 도는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동훈, “호남에서 보수 정치 되살려야”=한동훈 후보는 호남의 보수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말로 정견발표를 시작했다.

한 후보는 “저는 법무부장관 시절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이 실행한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촌 김성수 같은 호남 보수의 선각자들이 앞장서 찬성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15% 득표를 걱정하지 않지만 호남 보수 후보들은 10% 득표도 하지 못해 선거비 한 푼 보전받지 못한다”면서 “호남에서 보수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청년 정치인을 길러내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호남에 청년 정치 학교 건립 ▲광주 총장도, 광양제철소, 군산·목포항, 전주 시내 등 호남 현장 찾기 ▲호남과 제주에서도 당당한 유능한 정당 완성 등을 약속했다.

◇나경원, “호남에서 키운 정치인 국회로”=지난

당권주자들 호남과의 인연 강조
호남 돌며 현장최고위 개최 공약
AI·농수축산업·바이오 산업 유치
당·정·지자체 소통 행정 약속
지역 현안·발전 방안 제시는 부족

5일에도 광주를 찾았던 나경원 후보는 이날 호남을 강하게 하기 위해 호남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선거 때만 되면 ‘호남 쟁기겠다’고 번지르르하게 말은 잘 한다”며 “호남을 쟁기는 것은 호남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다. 호남에서 밭 갈고 소 키우는 정치인을 국회로 들어오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는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이며 전남은 농수축산업, 미래 생명산업으로 대전환 중”이라며 “전북은 바이오산업 이차전지의 메카이며 제주는 새 시대 트렌드에 맞는 관광 산업의 중심지다. 호남에 제대로 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당원이 존중되는 정당, 보수의 뿌리가 충분히 외연 확장이 가능한 정당, 계파 정치를 타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호남 비례대표는 호남 당원과 국민이 뽑도록 하고, 제주 몫 비례대표,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원희룡, “전면 재시공” 변화 필요=마지막으로 정견발표에 나선 원희룡 후보는 2022년 1월 11일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를 언급한 뒤 발표를 이어갔다.

원 후보는 “아이파크가 무너진 후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공사, 공사 현장 관계자들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시공사는 전면 재시공이라는 중대 결정을 내렸다”며 “큰 손해를 받아들인 시공사, 보상에 합의한 입주예정자, 갈등을 조율한 우리 당과 정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한 결과였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 원하는 정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이겨본 사람, 대통령과 치열하게 토론해서 설득해 본 사람, 당원들과 수십년 호흡해 온 사람이 필요하다. ‘전면 재시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호남과 제주를 우리 당에게 참 어려운 곳이지만, 그래도 동지들이 있는 곳”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 대표 후보들에 앞서 최고위원 후보 9명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도 정견발표를 마쳤다. 다만 국민의힘이 권역별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만큼 호남·제주에 관한 다양한 공약이 기대됐으나, 지역 현안 등을 언급한 후보는 몇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전당대회 계파 갈등 ‘진흙탕 경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8일 전당대회 과열 양상과 관련해 후보들의 자중을 촉구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계파 갈등은 이어졌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가 과도한 비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후보 캠프 및 지지자들의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즉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대 과열 양상에 대해 “눈살 찌푸리는 행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한동훈 후보 측이 제기한 ‘대통령

실 전대 개입’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선을 그었다.

황 위원장은 “용산과 전당대회, 당과의 부적절한 연계가 있을 것”이라고 일부에서 우려하는데,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전대 과정에서 일체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간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계파 간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의 갈등은 여전했다.

한동훈 대표 후보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가 문자 공개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진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거론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문자 유출 기획자가 누구지, 그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이 의원을 배후로 지목했다.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다”고 인제 와서 논란을 키우는 것은 당에서 제명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 후보를 공격하는 나경원·원희룡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나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 후보와 김 여사 간 문자가 오간 시기는 1월이지만, 자신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3월부터라면서 “나는 문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올 상반기 직무 평가 1위

갤럽 전국 1만9000명 조사
김 지사 긍정 평가율 65%
이철우·김동연 지사 2·3위

한국 갤럽이 올해 상반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긍정평가율 65%로 1위를 차지했다. 부정평가는 17%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비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 평가는 1%

포인트 감소했다. 한국갤럽은 올해 1~6월 전국 만 18세 이상 1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전화 조사원들이 인터뷰 조사했다. 1위를 차지한 김 지사는 70대 이상에서 78%, 40대와 60대에서 각각 66%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김 지사에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63%), 김동연 경기지사(62%)가 2, 3위를 기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57%로 뒤를 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장우 대전시



장은 긍정 평가를 50%였다.

한국갤럽은 “시도지사 직무평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속해서 조사한 결과”라며 “특정 시점이 아니라 상반기 전 기간 지역 유권자들의 상

시 평가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4~7.7% 포인트, 응답률은 13.2%다.

한편 김 지사는 리얼미터가 조사한 월별 직무수행 평가에서 22개월 동안 1위를 지켜오다 지난 5월, 23개월 만에 3위로 내려 앉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Connect : Content IP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

2024. 7. 18 - 21
코엑스 Hall A&B1

